

비상경제장관회의 **경제부총리** 모두발언(8.8)

□ 지금부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

[① **최근 경제동향 및 대응방향**]

□ 세계경제는 물가, 경기 양 측면에서 여전히 어려운 모습입니다.

-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은 통화긴축 속도조절 기대 등으로 변동성이 다소 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,
-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·중국의 2분기 역성장으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.

□ 우리경제도 이러한 해외발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는 모습입니다.

- 금융시장은 최근들어 외국인 증권자금이 순유입으로 전환하는 등 다소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,
- 7월 물가가 2개월 연속 6%대를 기록하는 등 고물가가 지속되고, 성장도 수출·투자를 중심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.

□ 이에 정부는 물가·민생안정을 최우선에 두면서, 민간 경제활력 제고 노력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.

- 우선 기 발표한 8차례의 물가 등 민생대책을 속도감있게 이행하고, 추석 민생안정대책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등 추가대책도 금주중 발표토록 하겠습니다.
- 민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·구인난·자금조달 등 기업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수출활력 제고방안을 빠른 시간내 마련하는 한편,
 - 지난달 발표한 반도체를 시작으로 업종별 지원전략도 순차적으로 마련하여 수출 및 투자확대를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.

[② 최근 구인난 해소 지원방안]

- 다음으로, 최근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- 최근 취업자 수, 고용률 등 양적인 고용지표는 대체로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, 산업·업종별로 체감 고용상황이 상이하고 일부 산업현장에서는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.
 - 기업이 채용을 원하지만 채우지 못한 빈일자리수는 6월 기준 23만 4천개로 2018년 2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,
 - 이 중 300인 미만 기업의 빈일자리수가 22만 4천개를 차지하는 등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입니다.
 - 특히 수주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조선업의 경우 하반기부터 생산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.
- 이러한 산업현장의 인력부족 문제가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.
- ① 우선, 未입국 외국인력 4만 2천명('20~'22.上)과 하반기 배정인력 2만 천명은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,
 - 추가 수요가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8월중 금년 쿼터를 추가 확대하는 한편, 내년도 쿼터도 금년중 최대한 조기 확정토록 하겠습니다.
- ② 특히 조선업 전문인력 부족에 대응하여 당장 9월부터 용접·도장공 등 외국인 신규기능전문인력을 최대 9천명까지 도입하고,
 - 현재 2천명 규모인 숙련기능전환인력(비숙련 E-9→숙련 E-7)도 조선업에 대해서는 별도 쿼터를 신설하겠습니다.

③ 아울러, 산업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일자리가 구직자와 실제 연결되도록 밀착 지원하는 한편,

- 고부가가치 산업화 등 근본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중장기 개선노력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.

[④ 유휴·저활용 국유재산 매각·활용 활성화 방안]

□ 한편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이겨내기 위해, 공공부문에서도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○ 그 일환으로 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 중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·저활용 재산을 향후 5년간 총 16조원+a 규모 매각하고,

○ 즉시 매각이 곤란하거나 민간의 수요가 적은 재산은 국가가 나서서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하여 매각·대부하는 등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.

□ 그럼 지금부터 구인난 해소 지원 관련 고용부 장관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.

(고용부 장관 모두발언)

□ 그럼 지금부터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.